

## 고하(古下)의 희생과 대한민국의 상생

김명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고하 선생님에 대한 추모의 마음으로 과문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고하 선생님에 관해 가르치고 있는 서생의 보고라고 생각하시고 관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한국현대사를 연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들도 고하 선생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고하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1945년은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을 주었지만 약 5천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제공했던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암살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황태자 암살사건으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 루돌프 황태자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당시 암살당했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은 요셉 프란츠 황제의 조카였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합방제국의 황위계승예정자를 암살한 것은 게르만민족의 팽창에 맞서서 “세르비아 민족의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내걸었던 청년 세르비아민족주의 단체 흑수단(黑手團)의 소행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1914년 사라예보암살사건처럼 1945년 9월 평양에서는 현준혁,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고하가 정치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스스로 열렬한 민족주의자라고 자처했던 한현우를 주범으로 18세부터 28세까지의 청년들이 자행한 폭거였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에 맞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봉대론을 펼쳤던 고하 선생께서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방법을 놓고 일부 임정계 인사들과 격론을 벌인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하의 영전에 7언 절구의 조시가 헌정되었습니다.

義人自古 席終稀(의인자고 석종희):

옛적부터 의인은 병석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드무니,

一死尋常 視若歸(일사심상 시약귀):

한번 죽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심상히 여기네.

舉國悲傷 妻子哭(거국비상 처자곡):

온 나라가 비통하고, 처자는 통곡하는데  
臘天憂里 雪霏霏(납천우리 설비비):  
연말의 망우리 하늘에는 눈만 펄펄 내리는구나.

이 조치를 바치며 우남 이승만이 어린 아이처럼 오열했던 이유는 우남과 백범이 귀국하기 앞서 고하가 담당했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 또 그의 서거가 남긴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남이 집권하든 백범이 집권하든 당시 고하는 대한민국 초대 총리로 손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고하는 자유와 평등의 상생을 추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하를 보수의 상징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그의 진보적 사상에 기반했던 대한민국을 제대로 보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해방전후 한반도에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명확히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하는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상생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를 내건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일찍이 1920년 제2차 코민테른대회에서 레닌이 21개조 가입조건을 통해 전 세계 사회당으로 하여금 공산당으로 개명할 것을 요구했을 때, 당시 유럽의 사회당은 치열한 사상투쟁 끝에 다수파였던 공산당과 결별하며 소수파의 길을 걸었지만, 미테랑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고하는 폐쇄적 민족주의 보다는 국제적 공생도 추구했습니다. 고하는 약 7백만에 달하는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약 3백 내지 5백명 광복군의 기개를 존경하고 봉대했습니다만 7백만 일본군을 궤멸시킨 주력은 약 1천만의 군사력을 동원했던 미국, 그리고 역시 천만대군을 호령하면서 뒤늦게나마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했던 소련이었다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의 동맹관계 위에서 국제적 공생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이러한 현실인식 위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수록 국제적 공생을 추구했던 고하에 대한 기억은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고하는 일제치하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48인 민족대표들 중 한 사람으로서 투옥당했고, 일제말기 국내에서 창씨개명하지 않았던 몇 안되는 민족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의 고하가 인촌 김성수 등과 함께 견지했던 임정봉대노선 위에서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이 목표로 삼았던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이 1945년 해방과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통해 38선 이남에서나마 제한적으로 달성될 수 있었습니다. 고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박헌영 등이 주도했던 조선인민공화국, 그리고 김일성이 주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하가 봉대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897년 수립된 대한제국을 계승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1910년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하면서 조선이라는 명칭을 부활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북해도(北海道)에 상응하는 남해도(南海道)라는 명칭도 고려했지만, 결

국에는 조선이라는 명칭을 환원함으로써 중화제국 하의 ‘조선’처럼 일본제국 하의 ‘조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많은 조선인들 또는 한국인들은 1897년 국호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가 1910년 다시 조선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의로운 선각자들을 통해 대한제국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다시 고하와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고하의 희생에 대한 기억을 통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1948년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 기억의 상생이 이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는 대한제국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고조선에서 이씨조선, 일제하 조선,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어진 역사적 흐름이 민족정통사라고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민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진보적 민족이 김일성민족이라고 교육되고 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은 평양에서 발행한 역사교과서에서는 아예 빠져 있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는 폄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을 재생산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역사인식이 진실에 기초하지 못한 채 서로 꼬여 있다고 할 지라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듯 알렉산더대왕의 칼을 동원하려고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생해야 할 이북 동포들과 그들이 애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 그리고 폭압적 3대 세습독재정권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고하의 희생이 남긴 가장 큰 교훈들 중 하나는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서로의 생각이 극렬히 대립한다 할 지라도 불법적 살생을 부추기거나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누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든지 우리 모두가 고하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고하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파리 1-팡테옹 소르본대학 박사

국제학술지 *Geopolitics* 편집위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차기회장(2018-2019)

주요 저작: <<해방전후사의 인식4, 6(공저)>>, <<대서양문명사>>, *Northeast Asia and the Two Koreas* (공저),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등 다수.